

원로 관악인이 증언하는  
한국 관악의 전개:  
1970년대 한국관악협회(KBA)의 창립과  
초기 활동을 중심으로

허지연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 들어가며
2. 한국 관악협회의 창립과 일본 관악계의 연결고리
  - 1) JBA 이사장, 가스가 마나부(春日學)
  - 2) 야마하 관악기 제작의 출발
3. KBA 초대 임원진을 통해 본 1970년대 한국 관악계
  - 1) 세 명의 군악대장: 최문호, 김영방, 도정삼
  - 2) '민간인' 이재옥과 김종석
4. KBA의 초기 활동
5. 나가며

## 개 요

한국관악협회(KBA)는 한국 관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52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1973년 한국관악지도자회로 출발하여, 1977년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후 다시 한국관악협회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KBA는 한일 교류를 통해 국내 관악계에 자극을 던지고, 전국 관악제와 KBS배 경연대회를 주최하여 초중고 관악대의 경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학교 관악대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관악 앙상블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밴드부(혹은 음악부) 출신이 대학의 관악 전공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클래식계의 관악 수준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 양악사 서술에서 관악계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고, 협회의 홈페이지 자체가 없을 정도로 관악인들의 조직력이 약한 상황에서 KBA의 존재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1970년대 KBA의 설립과 초기 활동을 원로 관악인들의 구술을 기초로 추적한다. 특히 협회 발기인이자 초대 사무국장으로 활약한 김영방(1937년생)의 증언이 중심이 된다. 이런 점에서 구술을 ‘역사쓰기’로 전환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논문이 다루는 1970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이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정점을 치달은 시기로, 한국의 위상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미한 시기였다. 이 연구가 구술자의 증언을 통해 당시 관악계의 상황뿐 아니라, 반세기 전 한국 사회의 실상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관악협회, 관악대 지도자, 취주악단, 군악대, 해군군악학교, 밴드부, 이재욱, 김영방

##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2024년에 필자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구술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곡가 이영조 선생(1943년생)과 나는 인터뷰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미국 유학 전의 구두회<sup>1)</sup>가 지도한 배재 중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여러 악기를 다루고 앙상블을 체험하고 호른을 공부한 것이 작곡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음악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고등학교 ‘밴드부’와 전문 음악교육 사이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영조의 진술을 통해 1950년대 후반의 고등학교 밴드부가 음악가 지망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필자가 올해 아르코예술기록원이 기획한 “한국 관악의 전개: 1950-70년대 고등학교 관악대와 군악대를 중심으로”(가제)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관악계의 원로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면담하면서 1973년의 한국관악협회(이하 KBA<sup>2)</sup>) 창립이 한국 관악(교육)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임을 알게

---

\* 이 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아르코예술기록원이 추진한 2025년도 주제사 연구 “한국 관악의 전개: 1950-70년대 고등학교 관악대와 군악대를 중심으로”(가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전면담 자료 중 일부를 토대로 그 논의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연구를 주관한 아르코예술기록원 관계자와 구술자로 참여한 김승택, 김영방, 노덕일, 이종구 선생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 1) 구두회(具斗會, David Tuhoy Koo, 1921-2018): 작곡가. 1957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유학했고, 귀국 후 숙명여대 음대 작곡과 교수를 지냈다.
- 2) 한국관악협회는 초창기에 두 차례 이름이 교체되었지만, 영문 표기는 처음부터 KBA로 현재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관련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서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KBA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는, 먼저 그것이 구술자로 참여한 원로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단체의 창립과 초기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JBA 즉 일본 취주악지도자 협회(日本吹奏樂指導者協會, Japanese Band Directors Association)에 대응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JBA 관련 정보는 “日本吹奏樂指

되었다. 이 단체는 현재도 한국 관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52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 1973년 한국 관악지도자회<sup>3)</sup>로 출발하여, 1977년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후 다시 한국관악 협회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KBA는 한일 교류를 통해 국내 관악계에 자극을 던지고, 전국 관악제와 KBS배 경연대회를 주최하여 초중고 관악대의 경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학교 관악대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관악 양상불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밴드부(혹은 음악부) 출신이 대학의 관악 전공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클래식계의 관악 수준을 높이는 것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원로 관악인들의 구술을 기초로 KBA의 설립과 초기 활동을 추적한다. 특히 협회 발기인이자 초대 사무국장으로 활약한 김영방(1937년생)의 증언이 중심이 된다. 구술을 토대로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문서에 기초한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잘 짜인 매끈한 서사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중간중간 도약이 심하다. 또한 기억은 늘 불완전하기에 반드시 다른 자료와 상호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완성보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풀어나갈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을 완성하고, 나머지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겠다. 이 작업이 피아노와 성악, 현악 중심의 대학 교육 체계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마이너’ 영역으로 존재한 관악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 서양음악계의 전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 말기, 한국의 위상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미미

導者協會,” <https://ja.wikipedia.org/wiki/日本吹奏樂指導者協會>를 참고할 것. 검색일: 2025. 4. 3.

3) 단체의 첫 이름이 ‘한국 관악대지도자회’로 표기된 곳도 있다. 필자는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가 간행한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983)의 화보에 실린 당시 팜플렛을 근거로 ‘한국 관악지도자회’로 적었다.

한 시기의 우리 사회의 실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피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용어의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하겠다. 이 글에서는 목관, 금관, 타악기로 구성된 합주 형태를 ‘관악 앙상블’로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취주악단’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용어가 일제강점기와 1950, 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관악은 악기의 형태에, 취주악은 소리를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윈드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취주악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 관악 앙상블은 다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영어권에서는 콘서트 밴드와 마칭(marching) 밴드라는 구분이 일반적이다. 1983년 출판된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이하 『10년사』)<sup>4)</sup>에 따르면, 이를 관악대(연주 부문)와 고적대(행진 부문)로 구분하였다. 일상적으로는 고등학교 관악 앙상블과 관련해서 ‘밴드부’라는 통칭이 1980년대까지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기타·베이스 기타·키보드·드럼으로 구성된 앙상블을 다루는 모임을 밴드부로 부르고, 목관·금관·타악기의 앙상블을 다루는 곳은 ‘관악부’로 부른다.

## 2. 한국관악협회의 창립과 일본 관악계의 연결고리

한국관악협회(KBA)는 1973년 9월 27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협회는 1968년 1월 북한 공작원 김신조의 침투<sup>5)</sup> 이후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련 교육이 시행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관악대가 개설되는 상황에서, 군악대장과 일선 학교

4)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22.

5)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1·21 사태’로 부른다. 또는 당시 유일하게 생포되었던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한다.

관악대지도자들의 관악 발전 의지가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당시 해병대 군악대장으로 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김영방은 그 이면에 일본 취주악지도자 협회(JBA, Japanese Band Directors Association, 日本吹奏樂指導者協會)를 매개로 한 야마하<sup>6)</sup>의 한국 시장 개척 전략이 깊이 관여하였다고 회고한다. 먼저 KBA 창립에 관한 김영방의 구술을 들어보겠다.

[인용문 1]

김영방: 이제 73년이 (일본 야마하가) 한 10여 년 동안 악기 생산해서 이제 (일본) 국내에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수출을 해야겠다’ 해서 맨 처음 타깃을 한국으로 잡은 거야. 그래서 규슈에 있는 사카모토가 당시 규슈에 있는 JBA의 지부장이면서 규슈에서 야마하 대리점을 했다고. 그게 악기 장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도악기사가 그때 제일 컸거든. 사카모토가 수도악기사 사장인 안응균이라는 사람과 접촉을 한 거야. 그 사람하고 이제 사카모토하고 친해.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 안응균 씨가 서울대학교 관악 출신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최문호하고도 동기거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해보자’ 해서 누가 왔냐면 최문호, 당시에 이제 공군 군악대장이죠. 다음으로 최문호가 이제 나(김영방)한테 왔는데, 내가 그때 해병대 군악대장할 때죠.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군악대장인 도정삼한테 얘기했다고. 거기에 서울 성남고의 김종석 선생이 합류하고, 서울대 교수인 이재욱 선생을 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죠.<sup>7)</sup>

위의 인용문은 한일 양국의 악기 유통업자인 사카모토(坂本)<sup>8)</sup>와 안응균의 만남이 KBA 창립의 출발임을 증언한다. 사카모토는 야마하 대리점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JBA 규슈(九州) 지부장을 맡고

6) 정식 명칭은 야마하 주식회사(Yamaha Corporation)이다.

7) 필자는 구술자의 말을 그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8) 구술자는 사카모토라는 성만 기억하였다.

있었다. 이는 취주악 즉 관악 앙상블의 보급과 악기 유통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에 더하여 현역 군악대장인 최문호·김영방·도정삼, 음악 교사 김종석 네 명이 협회의 창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아래 사진은 KBA 창립 3개월 전인 1973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한 사카모토와 한국 측 인사들이 찍은 것이다.



(그림 2) KBA 창립의 주역들. 왼쪽부터 최문호, 미상, 안응균, 사카모토, 김영방, 김종석. 1973년 6월 덕수궁에서 찍었다. (사진 제공: 김영방)

#### 1) JBA 이사장, 가스가 마나부(春日學)

김영방은 당시 일본 관악기 시장에 관해 “이제 73년이 한 10여 년 동안 악기 생산해서 이제 국내에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니까”라고 언급한 다음, 이를 아래와 같이 보충한다.

[인용문 2]

김영방: 64년 동경 올림픽 했을 때, 그때부터 일본 관악이 활성화가

됐어. 그 무렵 야마하에서 닛칸이란 회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관악기를 만들게 되었지. 이 이야기는 JBA의 이사장—그분도 돌아가셨지만—이 나한테 해준 거야. 그 사람 이름이 가스가 마나부야.

위에서 보듯이 김영방은 ‘한 10여 년’이라는 기간과 관련해서 ‘1964년 동경 올림픽을 전후해서 일본 관악이 활성화되었고, 야마하가 닛칸 악기사와 제휴하여 관악기를 제작 판매하였다’는 요지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1970년대 JBA 이사장을 역임한 가스가 마나부(春日學, 1915-1993)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sup>9)</sup> 이어서 김영방은 일본 패전 이전에 해군 군악대를 지도하던 가스가 마나부가 1960년대부터 일본 취주악 분야의 지도적 인물로 활약하게 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인용문 3]

김영방: 그 가스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 해군 군악대장이었는데, 패전 이후에 이제 생활이 뭐 하니까, 뭘 했는가 하니, 여기로 말하면 포장마차를 했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본 해군 군악대 취사병으로 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길가에서 가스가 씨를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나 하면 ‘센슈’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출판회사, 그걸 해서 ‘천수’ 빌딩이라는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 그런데 그 사람이 해군 군악대에서 모신 가스가 대장을 본거지. 무조건 데려다가 당신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과장으로 임명해서 관악 발전만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JBA 사무실도 마련해주었어.

필자가 [인용문 2]와 [인용문 3]의 내용을 토대로 검색한 결과, 보다 자세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김영방은 KBA 활동을 계기로 가스와 깊은 인간적 교류를 이어갔고, 가스가 ‘한국 아들’로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우선 가스가 마나부라는 인물은 1915년 나가노현 이나시<sup>10)</sup>에서 태어나 1932년 요코스카 해병단(海兵團) 군악대에 입대하였으며 튜바를 담당했다. 1937년 해군성 위탁생으로 도쿄 음악학교에서 공부했고, 1939년에 수료했으며, 1943년까지 계속 학업을 이어갔다. 이후 그는 1945년 요코스카 해병단 군악대 교관(계급은 해군 군악병 조장)으로 패전을 맞이한다. 패전 후 그는 1953년 우정성(郵政省)에 채용되었고, 우정중앙취주악단의 지휘자로 취임하여 1963년까지 재직하였다. 이 시기에 센슈 취주악단(千修吹奏樂團)을 비롯한 여타 직장 밴드를 지도하였고, 전(全)일본 취주악 콩쿠르에 출전하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1965년부터 일본 내 취주악 단체의 대표직을 여러 차례 역임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65-1972: 도쿄도 취주악연맹 이사장
- 1973-1985: 일본 취주악지도자 협회(JBA) 이사장
- 1973-1982: 전일본 취주악연맹 회장
- 1978-1993: 아시아·태평양 취주악지도자 협회 초대 회장
- 1985-1993: 일본 취주악지도자 협회 제7대 회장<sup>11)</sup>

이상의 이력을 종합할 때, 가스는 해병 군악대에서 튜바를 불면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도쿄 음악학교에서 공부하였다. 패전 후에 중앙 행정기관인 우정성(한국의 정보통신부에 해당)에 채용되어 소속 취주악단을 지도한 점 역시 관악대

10) 나가노(長野)현 이나(伊那)시가 소년 시절 군대에서 북을 치는 고수(鼓手)로 활동하고, 후에 메이지 일본의 학교 음악 교육의 토대를 닦은 문부성 관료 이사와 슈지(伊沢修二, 1851-1917)의 고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일본 관악의 출발과 이사와 슈지의 소년 시절 일화에 관해서는 오쿠나카 야스토 / 허지연 외 옮김, 『국가와 음악: 일본 근대국가 형성과 음악의 수단화』 (서울: 민속원, 2023), 제1장을 참고할 것.

11) 가스의 경력은 “春日學,” <https://ja.wikipedia.org/wiki/春日學> 참조. 일본 위키피디아의 내용은 김영방이 단편적으로 언급한 가스가 관련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검색일: 2025. 4. 3.

지도자로서 능력을 입증한다. 그는 탄탄한 실력을 토대로 1965년 이후에는 일본의 주요 취주악 관련 단체를 이끌었고, 1978년에는 국제적인 단체도 조직하여 1993년 2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가스가가 일개 취주악단의 지휘자에서 일본 취주악계의 주요 인사로 활동의 폭을 넓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인용문 3]에서 김영방이 언급한 ‘센슈(千修) 인쇄회사’ 대표와의 재회였다. 관련 에피소드가 웹에 자세히 나와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센슈 인쇄회사의 초대 회장인 시타야 노부히사(下谷修久)는 전쟁 중에 해군에 복무하였는데, 가스가가 그의 직속상관이었다. 1945년 3월 도쿄대공습 당시 시타야는 간다(神田)에 있는 자신의 인쇄소가 피격되었을 것을 염려하던 중, 가스가의 배려로 외출하여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연결이 끊어졌다가, 우연히 야구 경기장에서 가스가가 우정중앙취주악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의 회사에 그를 초빙하고 센슈 취주악단을 설립하였다.<sup>12)</sup>

이 에피소드는 가스가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과거의 취사병과 마주쳤다는 김영방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센슈 인쇄회사의 시타야 사장이 과거의 상관이던 가스가와 재회한 후 그를 본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후원자를 자처하며 취주악단 관련 활동에 매진하도록 청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가스가와 시타야 사이의 인연이 일본 취주악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JBA 시타야상’(JBA 下谷賞)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 상은 1968년 ‘JBA 작곡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는데, JBA가 취주악 작품 개발과 취주악 작곡가 육성을 위해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1975년부터 시타야 노부히사(下谷修久)와 시타야 다카유키(下谷隆之)가 후원하면서 ‘시타야상’으로 바뀌었다가, 2016년부터 현재의 이름인 ‘JBA 시타야상’이 되었다.

12) “春日學,” <https://ja.wikipedia.org/wiki/春日學>, 각주 2번 참조. 검색일: 2025. 4. 3.

가스가 마나부 이사장은 KBA 창립 무렵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1974년부터 이어진 한일 교류 연주회를 후원하면서 KBA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행보의 이면에 JBA를 통해 한국 시장 개척 가능성을 타진한 야마하의 협찬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아래 사진에서 1970년대 초 한국을 방문한 가스가 마나부 이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13)</sup>



(그림 8) KBA 창립 무렵 한국 구세군 고아원 밴드부를 방문한 JBA 임원진. 첫 줄 오른쪽 끝이 사카모토, 세 번째가 가스가 이사장. 맨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도정삼, 김영방, 이재욱이 차례로 보인다.

(사진 설명은 김영방)

## 2) 야마하 관악기 제작의 출발

[인용문 2]에서 김영방은 “64년 동경 올림픽 했을 때, 그때부터 일본 관악이 활성화가 됐어. 그 무렵 야마하에서 닛칸이란 회사와 손을

13)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중 화보.

잡고 본격적으로 관악기를 만들게 되었지”라고 언급하였다.

닛칸은 일본관악기주식회사(日本管樂器株式會社)의 약칭이다. 닛칸은 메이지 시대인 1902년 ‘에가와 악기제작소’로 창업하여 일본산 관악기 제조를 시작하였다. 1918년 ‘합자회사 · 일본관악기제작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용 나팔 등을 제조하여 군대에 납품하였다. 이후 1937년에 다시 ‘일본관악기주식회사(닛칸, NIKKAN)’로 발전하였는데, 당시 닛칸의 최대 거래처인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日本樂器製造株式會社, 야마하의 전신)<sup>14)</sup>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야마하의 자회사가 되었다.<sup>15)</sup>

패전 이후 일본에서 ‘취주악의 저변이 확대된 것은 1964년 열린 동경 올림픽 무렵’이라고 앞에서 언급했다. 야마하가 관악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1963년이라는 점은 취주악의 저변 확대와 관악기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야마하 직원으로 관악기 개발을 이끈 가와사키(川崎憲三)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1937년부터 시작된 야마하와 닛칸 사이의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된 것은 1963년부터라고 한다. 당시 닛칸의 악기 설계자가 야마하로 이직하여, 설계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먼저 트럼펫, 플루트, 색소폰의 제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물 중에서 최초로 상품화된 것이 1965년 가을에 발매된 ‘닛칸 · 임페리얼 TR-1’ 트럼펫이다.<sup>16)</sup> 이를 토대로 한 상위 기종으로 다음 해인 1966년 초에 발매한 것이 바로 ‘YTR-1’이다. 여기에서 ‘Y’는 물론 야마하를 가리킨다. 이후 야

14)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가 우리에게 익숙한 ‘야마하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87년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1987년 이전 상황에서도 ‘야마하’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관련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 참고. <https://www.yamaha.com/ja/about/history/>. 검색일: 2025. 4. 3.

15) 야마다 덴잔(山田典山)의 블로그 중 “국산 관악기 제작의 출발”을 참고. <https://ameblo.jp/yamadatenzan/entry-12208074628.html>. 검색일: 2025. 4. 10.

16) 닛칸이 1970년 야마하에 흡수 병합될 때까지는 닛칸이라는 브랜드도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마하는 여러 아티스트와 악기 제작자를 자문과 테스터로 초청하여 협업을 진행하면서 악기의 품질을 개선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클래식 트럼펫 주자 레놀드 쉴케(Renold Schilke)와 재즈 뮤지션 바비 슈(Bobby Shew)를 들 수 있다.<sup>17)</sup>

### 3. KBA 초대 임원진을 통해 본 1970년대 한국 관악계

[표 1]은 1973년 9월 27일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KBA 창립 총회 당시 임원 명단이다. 이들의 이력을 한 명씩 살펴보자.

[표 1] KBA 초대 임원진

직책	이름	당시 소속
발기인	안응균, 최문호, 김영방, 도정삼, 김종석	안응균(수도악기사 대표) 최문호(공군군악대장) 김영방(해병대군악대장) 도정삼(해군군악대장) 김종석(서울 성남고 교사)
회장	이재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부회장	황기오, 이교숙	황기오(전 육군군악대장) <sup>18)</sup> 이교숙(전 해군군악대장) <sup>19)</sup>
전무이사	최문호, 김종석	
사무국장	김영방	

17) 가와사키는 야마하 관악기 제1호인 트럼펫 ‘YTR-1’이 발매된 1966년에 야마하에 입사하였고, 이후 일본 국내외의 음악가들을 대응하는 창구가 된 ‘아틀리에’(현재 야마하 아틀리에 도쿄)의 초대 실장을 역임했다. 관련 내용은 웹 잡지 [Trumpet]을 참조. [https://www.alsoj.net/trumpet/magazine/view/920/2825.html?srsltid=AfmBOopoUeP\\_NpKlJWELIVNele7zzoLwZeV9WGHATszyCpdcaPM8KAT](https://www.alsoj.net/trumpet/magazine/view/920/2825.html?srsltid=AfmBOopoUeP_NpKlJWELIVNele7zzoLwZeV9WGHATszyCpdcaPM8KAT). 검색일: 2025. 4. 15.

18) 황기오는 1923년경 출생으로 한국 전쟁 당시 주요 음악가로 활동하였다. “전시의 문화인들⑩ | 음악인의 활동,” 『중앙일보』, 1973. 4. 13.

19) 이교숙(1924-2017)은 강원도 원산 출생으로 해방 직전 만주 신경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해방 후 고려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9월 해군 군악학교 교관

## 1) 세 명의 군악대장: 최문호, 김영방, 도정삼

먼저 주 구술자인 김영방이 관악기를 접한 과정을 들어본다.

## [인용문 4]

김영방: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내가 그때 덩치가 크다고 튜바를 주더라고. 튜바 했는데, 이제 시가행진 하는데, 수자폰을 메라고 그러더라고. 그 수자폰이 그게 국산이야. 근데 맘을 흘리니까, 여기 그냥 셔츠에 파란 녹이 묻고, 어떻게 힘든지. 2학년 딱 올라오면서, 이제 제일 작은 악기를 해서 클라리넷을 했어요. (...) 3학년 딱 올라갔는데, 3학년에 트럼펫 부는 선배가 3명이 있었는데, 다들 졸업하고 나니 이제 트럼펫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트럼펫을 붙었다고. 그래서 내가 대학 들어갈 때는 트럼펫으로 입학시험을 봤지.

김영방은 대전고 밴드부(음악부)에서 관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1955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으니, 고등학교 1학년이면 1952년 봄일 것이다. 이 시기가 휴전 이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 악기, 악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다. 어딘가에서는 전투가 진행 중이었으나, 후방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갔고 음악부가 돌아갔다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낯설게 느껴진다. 김영방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후에 KBA 공동 발기인 중 한 명이 되는 김종석을 만나 지도를 받는다.<sup>20)</sup> 이 인연은 이후 오래도록 이어져 훗날 KBA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전고 졸업 후 김영방은 서울로 유학길에 올랐다. 연희대(현재 연세대의 전신)<sup>21)</sup> 신과대학 종교음악과<sup>22)</sup> 제1회로 입학하였는데, 입

---

으로 입대했다. 1956년부터 57년까지 워싱턴의 미국 해군 음악학교에서 유학한 후, 해군 군악학교 교장과 해군본부 군악대장을 맡았다. 1967년 3월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에는 이화여대와 중앙대 음대 교수, 제2대 KBA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 이에 관해서는 2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학시험은 트럼펫으로 보았다. 당시 종교음악과에는 나운영(작곡, 1922-1993), 박태준(합창지휘, 1900-1986), 황병덕(성악, 1920-2012) 세 명의 교수가 있었다. 김영방은 나운영의 제자가 되어 작곡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김영방은 해병대 군악대에 입대하여 '병'23)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1년 후인 1960년에 당시 상관이자 해병대사령부 군악대장인 안진영의 강압으로 장교 시험을 보고24) 임관하였으며, 군악대장으로 일하게 된다. 그는 1973년 10월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고 해병대 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13년간 해병대 군악대장으로 복무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김영방이 군악대장, 즉 직업 군인으로서 음악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에서 공부한 '작곡'이 아닌,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연마한 관악 실력이 음악가로서 경력을 쌓는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관악 음악가의 이력이 피아노나 현악, 성악 음악가들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군대, 더 구체적으로는 군악대와외의 연관성이 그것이다. 한국 전쟁 동안 음악가들이 해군정훈음악대 등의 군 관련 조직을 통해 활동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관악계의 경우 군대와외의 연결이 1970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던 셈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관악 전공 대학 졸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연주 단체가 그만큼 빈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영방 뿐 아니라 발기인에 포함된 최문호와 도정삼도 현역 군악대장이었다. 최문호는 양정고등학교 출신으로 트롬본을 전공했으며,

21)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은 1957년 초이다.

22) 신과대학 종교음악과는 1963년 1월에 음악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그 아래에 교회음악과·성악과·기악과·작곡과를 두었다.

23) '병'은 징병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해진 동안 군에 복무하고 내무반 생활을 한다.

24) 김영방은 이 사건 전까지 직업 군인의 길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1960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sup>25)</sup> 이후 공군에 복무하였다. 도정삼(1937년생)은 1956년에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대 신과대학 종교음악과에 입학하였다. 196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1960년 해군 입대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소위로 임관하였다.<sup>26)</sup> 이들 중 김영방과 도정삼, 최문호는 군악대장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여러 행사에 함께 참여했고<sup>27)</sup> 협회를 만들기 전부터 사적으로도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한편, 수도악기사의 안응균 사장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호른을 전공했고, 최문호와 마찬가지로 1960년에 대학을 졸업했다.<sup>28)</sup>

1950년대 후반에 음악대학을 졸업한 세 명의 관악인이 1970년대 초까지 군악대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군악대가 관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직장 중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민간 악단의 보수와 음악대학 관악 전공 교원의 수, 고등학교 관악대 지도자의 수, 관악 전공 학생의 수, 이들이 지불하는 레슨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군악대장이라는 직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보상이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생각이다. ‘밴드부-음악대학-군악대’가 소위 엘리트 관악인의 코스였다는 점은 성악과 여타 기악 전공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 2) ‘민간인’ 이재욱과 김종석

김영방에 의하면, 먼저 모인 안응균과 세 명의 군악대장은 군악대 종사자만으로 협회를 구성하면, 협회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것을 염려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고등학교 관악대로 이름

25) 서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명부』 (미출판 인쇄물), 37.

26) 도정삼의 이력은 대한민국해군, 『해군군악대 77년사』 (대한민국해군, 2024), 46 참고.

27) 당시에는 학교 관악대의 경연대회 심사를 군악대장이 모두 담당했다고 한다.

28) 서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명부』, 36.

을 날린 서울 성남고등학교의 음악 교사인 김종석과 접촉했고, 회장에는 서울대학교의 이재옥 교수를 모셨다. 안응균과 최문호가 서울대 출신이고 이재옥 교수가 1955년부터 서울대 관악 전공을 총괄하였기 때문에,<sup>29)</sup> 이재옥을 협회의 회장으로 초청한 배경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김종석의 합류가 궁극증을 유발하는데, 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김영방을 대전고 음악부에서 지도한 인연을 계기로 고등학교 교사로써 유일하게 발기인 다섯 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즉, KBA 창립이라는 중요한 공적 사건이 그 이면에서는 주요 참여자의 사적 친분을 매개로 진행된 셈이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런 진행이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KBA의 초대 회장을 맡은 이재옥은 1913년생으로 우리나라 서양 음악가 중에서 초기 인물에 해당한다. 그의 생애를 한상우의 연구<sup>31)</sup>를 기초로 살펴보겠다. 이재옥은 20대 전반에 도쿄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했고,<sup>32)</sup> 25세인 1938년부터는 만주 신경<sup>33)</sup>으로 옮겨서 음악가

29) 당시 현제명 학장(재임: 1953-1960)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관악 전임 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현악기뿐 아니라 관악기를 두루 다루는 이재옥에게 관악 전공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실제로 호른·바순·트롬본 전공 학생을 지도했다고 한다. 이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학 음악교육에서 관악 영역이 그만큼 취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정생과의 인터뷰 참고.

30) [표 1]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사'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다.

31)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서울: 지식산업사, 2003), 68-73.

32) 이재옥은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도쿄 음악학교 '선과'(選科)에서 수학하였다. '선과'는 학교의 정규과정과는 별개로 실기만 지도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도쿄 음악학교 일람』(東京音樂學校一覽)을 조사하여, 그가 '1934-35학년도' '1935-36학년도' '1937-38학년도'에 각각 선과 1차 수험생, 선과 2차 수험생, 선과 연구생으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東京音樂學校 編, 『東京音樂學校一覽』 自昭和9年至昭和10年 (東京音樂學校, 193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콜렉션], <https://dl.ndl.go.jp/pid/1448341>; 『東京音樂學校一覽』 昭和10至11年 (東京音樂學校, 1936), <https://dl.ndl.go.jp/pid/1463113>; 『東京音樂學校一覽』 昭和12至13年 (東京音樂學校, 1938), <https://dl.ndl.go.jp/pid/1463140>. 검색일: 2025. 4. 29.

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신경은 1937년에 신경음악협회가 발족한 이래, 일본제국 권역의 음악가에게 새로운 활동무대로 부상하였다. 한국인으로는 이재옥과 김동진(1913-2009)이 가장 먼저 합류하였으며,<sup>34)</sup> 이후 안병소(1911-1974)와 전봉초(1919-2002) 등이 이곳에 적을 두었다. 신경에서 보낸 7년 여의 기간은 이재옥의 음악 세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도쿄 시절과 신경 시절을 더하면 그를 음악가로 키운 배경은 제국 일본인 셈이다.

한상우에 의하면, 해방 이후 귀국한 이재옥은 김성태의 주선으로 고려교향악단과 서울관현악단(이후 서울교향악단으로 개편)에서 호른 수석으로 합류했다고 한다.<sup>35)</sup> 만주에서 내려와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재옥을 수소문 끝에 찾아온 이도 김성태였다. 한상우는 이재옥과 김성태가 신경에서 함께 지냈다고 적었는데,<sup>36)</sup> 김성태가 1939년에 도쿄 고등음악학원(현재 구니타치 음악대학의 전신) 본과를 졸업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도쿄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있다.

해방기의 혼란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제 음악가들은 어떤 형태로 건 ‘군대’와 연결되어 생계를 모색하였다. 이재옥은 당시 육군 군악대장으로 활동한 김희조의 도움으로 육군 군악학교 교관으로 일하면서 육군 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sup>37)</sup> ‘악장’이라고 하니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는 의미이다. 이후 그는 육군 군악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군을 떠났고, 195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다.<sup>38)</sup> 서울대로 직

33) 당시 신경(新京, 일본식 읽기는 신교,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창춘[長春]시)은 만주국의 수도였다.

34) 岩野裕一, 『王道楽土の交響樂—滿洲—知られざる音楽史』 (東京: 音楽之友社, 1999), 182-83. 183쪽의 단원 명단 중 제1바이올린에 이재옥과 김동진이 포함되어 있다.

35) 이재옥은 일반적으로 비올라와 트롬본 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해방기에 호른 주자로 활동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6)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70.

37) 위의 책, 71.

장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현제명의 연희 시절 제자이자 이재옥의 오랜 지인인 김성태와의 연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당시 서울대에는 신경에서 함께 활동한 전봉초도 교수로 재직했다.

이재옥의 이력은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서양음악 엘리트의 행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그가 활동한 공간은 일본 도쿄에서 만주 신경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서울로 연결된다. 한국 전쟁기에 그는 육군 군악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는데, 이는 군악대가 음악인이 전쟁을 살아내는 통로 중 하나였음을 증언한다. 김영방 등이 1960년 무렵부터 군악대장으로 관악 엘리트의 삶을 살았다면, 이재옥은 그 한 세대 전에 군악학교 교관으로 그 길을 걸었다.

이재옥과 함께 교육자로 합류한 김종석(1932-1989)은 당시 서울 성남고등학교의 관악대 지도교사였다. 그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는 유일하게 발기인 5명에 이름을 올린 배경에는 고등학생 시절의 김영방을 지도한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과 대전고 음악부장 김영방이 만나게 된 사연은 대전 지역 관악인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에피소드이다. 관련해서 김영방은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인용문 5]

김영방: (김종석) 그분이 해군 군악대 출신이에요. 군악대장은 아니고, 근데 내가 대전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대전고 3학년 때, 그때 음악 선생이 없었어. 조광혁<sup>40)</sup>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 가고 없어서. 이제 그 밴드부장을 내가 했는데 (...) 당시에 대전

38) 각주 29번 참고.

39) 한상우도 이 맥락에서 “김성태와 전봉초의 주선”을 언급하였다. 위의 책, 71.

40) 조광혁(1918-2005)은 일본 무사시노(武藏野) 음악학교를 졸업했으며, 1950년대 대전 지역에서 합창 지휘자로 이름을 날렸다.

교육청이 주최하는 콩쿨이 있었는데, 근데 대전에 공업학교가 있었는데, 우리가 맨날 공업학교에 잤어.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없으니까, 콩쿨 나가려고 이제 지도를 내가 했어. 근데 어느 날 합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라 트라비아타, 축배의 노래’를 연습을 했다고. 근데 밤 11시쯤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변 직후여서 학교에 담벼락이 없고 전부 다 철조망이었다고. 어떤 사람이 해군 모자를 딱 쓰고, 밤 11시 반에 우리 연습하는 데 들어왔어. 저 철조망을 넘어가지고 (...) 그게 김종석 선생이야. 선생이 이제 우리를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할 때는 이게 잘 안 맞았는데, 그 선생이 하나까 딱 맞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았지.

당시는 1954년으로 휴전 다음 해이다. 김종석의 족집게 지도를 받은 대전고 밴드부는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해군 군악대를 떠나 대전고 교사로 임용된다. 당시 대전고 교장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밴드부의 성과에 매우 흡족해했다는 후문이다.

김종석의 성남고 시절 제자인 이정생<sup>41)</sup>의 회고에 따르면, 김종석은 원산 출신으로 ‘독일인’ 선교사에게 트롬본을 배웠다.<sup>42)</sup> 즉 북한 출신으로 해방기와 전쟁기의 혼란 속에 월남하여, 해군 군악대에 들

41) 이정생은 서울 성남고와 서울대 음대 기악과, 맨해튼 음악학교(석사)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시향의 트롬본 수석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 군악교육대 교관을 역임했다.

42)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1927년에 독일 성 베네딕토회의 수도원이 함경남도 덕원군(현재 원산시·문천시의 모체)에 ‘덕원수도원’으로 문을 연다는 사실이다. 이 기관은 1949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존재하였는데, 원산 출신의 어린 김종석이 이 수도원 소속 선교사에게 트롬본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 수도원은 1952년 7월에 경상북도 왜관수도원으로 옮겨왔다. 전쟁 중에 이사하면서 문서를 챙겨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더군다나 2007년에 왜관수도원 구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 덕원수도원 소속으로 트롬본을 다룬 사제나 수사의 존재를 확인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5. 4. 24.

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군악대가 이북에서 내려온 청년 관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다.

김중석은 1955년부터 3년간 대전고 관악대를 지도하는 한편, 트롬본 독주회를 열어 대전 관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고 한다. 전쟁 직후 마땅한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나 예식장을 빌려 행사를 열었다.<sup>43)</sup> 당시 대전공고 관악대 소속이었고 이후 KBA 충청남도 지부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한 노덕일(1940년생)<sup>44)</sup>은 김중석의 연주를 들은 기억을 아래와 같이 술회했다.

[인용문 6]

노덕일: 그분이 해군 군악대 중사 출신인데 트롬본을 부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대전고등학교에서 트롬본 독주회를 한다고 그래. (...) 아마 그분이 트롬본 독주는 대전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 ‘산들바람이’, 이 트롬본이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가운데, 음악의 가운데 소리 혹은 저음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 멜로디를 하는데 그렇게 듣기 좋을 수 없어.<sup>45)</sup>

대전에서 관악대 지도자로 이름을 얻은 그는 이후 서울 성남고등학교<sup>46)</sup>로 옮겨, 1989년까지 근속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성

43) 노덕일, “대전관악소사,” 『대전음악 60년사』 (문옥배 편저, 예술출판사·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2008), 99.

44) 노덕일은 현재 대전중구문화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전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1959년에 공군본부 군악대에 입대하여 1973년까지 복무했고, 이후 대전 공군기술교육단 군악대장(1973-1974)을 역임했다. 예편 후에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전과 충남 지역 음악교사로 활동하며 지역 관악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45) 2014년도 대전문화재단 기획, 『대전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채록집, 노덕일 편』, “제1차 구술채록문,” 17. 채록문 원문을 반복구를 삭제하고 문맥이 연결되도록 수정하여 적었다.

46)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1970년대에 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김석원(1893-1978)은 1915년부터 1945년까지 30년간 일본군 장교를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교육 사업에 투신하여 성남고등학교를 운영했다. 이 학교가 정부에 의해 교련 수업이 의무화되기 전에도 군대식 체식 훈련을 실시(졸업생 이정생의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김석원 이사

남고 관악대의 활동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성남고와 미8군’의 합동 연주회다. 이 행사는 제6회가 1971년, 제10회가 1975년에 열린 점을 고려할 때, 1966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71년의 행사는 10월 31일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으며, 프로그램은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제2번》,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시벨리우스 《핀란드리아》 등 13곡이다.<sup>47)</sup> 이 공연이 11월 14일 ‘KBS음악회’ 시간에 방송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인지도 있는 행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 4. KBA의 초기 활동

1973년 9월에 문을 연 KBA는 의욕적으로 활동을 떠나갔다. 같은 해 10월에 해병대에서 예편한 김영방이 전국에 KBA 지부를 조직하는 일에 착수하였다.<sup>49)</sup> 같은 해 10월에 제주도 지부, 11월에 전라북도 지부와 충청남도 지부, 1974년 7월과 11월에 각각 경상남도 지부와 인천 지부, 1975년 4월과 7월에 각각 전라남도 지부와 강원도 춘천 지부가 결성되었다.<sup>50)</sup>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 지부가 가장 먼저 문을 연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관악의 역사는 한국 전쟁 중에 제주시에 있는 오현고등학교에 미국인 길버트(Charles E. Gilbert, 1912-1998)의 후원과 음악 교사 고봉식(1923-2018)의 주도로 관악대가 조직되면서 시작되

---

장이 대전에서 관악대 지도자로 이름을 날린 김종석을 서울로 스카우한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세한 이력은 “김석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415> 를 참고할 것. 검색일: 2025. 4. 10.

47) “잡지의 날 6돌 유공자 표창,” 『조선일보』, 1971. 10. 30.

48) “KBS 성남고-미8군 합동연주 KBS음악회,” 『조선일보』, 1971. 10. 30.

49) 김영방은 해병대 사령부를 해군에 통폐합시키는 조치가 단행된 것을 계기로 1973년 10월 10일에 군을 떠났다. 예편 후 제화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KBA의 전국화에 몰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금일봉으로 구입한 토요타 퍼블리카(Toyota Publica) 자동차로 전국을 누비면서 물건도 팔고 협회 활동도 했다고 한다.

50)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15.

었다.<sup>51)</sup> 이후 오현고 관악대는 고봉식의 제자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를 졸업한 김승택(1935년생)<sup>52)</sup>이 13년간 열정적으로 지도하면서 실력을 다지게 된다.<sup>53)</sup> 이런 역사가 배경이 되어 제주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악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관악제’<sup>54)</sup>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관악 분야에서 주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KBA의 지역 지부 중에서 제주도 지부가 최초로 조직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주목할 곳은 충청남도 지부이다. 이곳은 [인용문 6]에 나오는 노덕일의 부지런한 활동으로 KBA 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노덕일은 KBA 창립 당시 대전 공군기술교육단 군악대장으로 복무하면서 동시에 대전 시내에 경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곳을 KBA의 아지트로 활용했다고 회고했다. 초대 사무국장을 맡은 김영방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대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KBA 초창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일 교류 연주회와 전국 관악제, KBS배 전국 경연대회, 지도자 강습회를 들 수 있다. 제1회 전국 관악제는 창립 다음 해인 1974년 11월 2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제1회 한국 관악대지도자 연수회는 1975년 1월에 대전 가톨릭 문화회

51) 오현고등학교 관악대의 초기 역사는 김나영·김진규·김태관, 『제주 관악의 선구자』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23-35을 참고할 것.

52) 김승택은 제주 오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에서 공부했다(1956-1958).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1958년부터 1965년,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모교 관악대를 지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이후 그는 1993년부터 2023년까지 한라 윈드 앙상블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53) 김승택과의 인터뷰. 김승택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에서 이제욱 교수로부터 따뜻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54) 1995년에 제주도 관악인이 주축이 되어 출발하였으며, 현재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와 제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봄 시즌과 여름 시즌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제주국제관악콩쿠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관에서 열렸다.<sup>55)</sup> 두 행사가 모두 대전에서 열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BS배 전국 관악대·고적대 경연대회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1976년 10월 31일에 제1회 대회를 출범하였다. 이 경연대회 이전에도 1964년 6월에 시작한 한국일보사 주최 관악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의 관악대를 위한 대회가 있었으나, 오래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바 있다.<sup>56)</sup> 반면에 KBA의 관악경연대회는 현재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며 학교 관악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sup>57)</sup> 제1회부터 제18회인 1993년 대회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이후는 지방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끝으로 한일 교류 연주회가 협회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김영방은 한일 교류 연주회의 출발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용문 7]

김영방: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행사를 일본에서 제안했어요. 교환 연주를 하자고 그랬다고. 맨 처음에 일본에서 악대가 왔어. 규슈에 있는 가혜 고등학교 밴드. 지휘자는 다케시마라는 여자 지휘자. 가혜 고등학교가 한국에 와서 전국을 순회한다고 해서, 이제 가스가 그분 밑에서 재정을 보는 오사와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이가 사전에 나한테 그때 미국 돈 2만 불을 주대. 그래서 내가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여기에 극장 전부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브로서 같은 거 만들고, 그 2만 불로 했지. 그 밴드가 와서 한 보름간 묵었을 거야. 나는 뭐, 뭣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가혜 고등학교가 와서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그렇게 연주를 하고 갔어요.

55)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15.

56) 남궁요열, “관악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음악협회 40년사』 (한국음악협회 편집, 서울: 수문당, 1985), 182-183.

57) 2024년에 제48회 대회가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렸다.

[인용문 8]

김영방: 그다음에 이제 답방으로 한국 대표가 가야 하는데, 성남고등학교 OB 멤버가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성남 재학생만이 아니고 졸업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경비를 당시에 일본에서 다 대줬어.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는 안 타고, 부산 가서 페리호 타고 규슈를 해서 신칸센 타고 올라갔지.

이정생<sup>58)</sup>: 규슈에서 오사카까지는 로칼 타고요. 오사카부터 신칸센.

김영방: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김종석 선생이 이교숙 선생이 작곡한 〈앵안〉이라는 곡을 지휘했다고. 나보고도 지휘하라고 해서, 나는 박재열 선생의 〈광파레〉 그걸 내가 했고.

위의 구술 내용을 협회에서 발행한 『10년사』의 주요 행사 일람과 비교해 보니 [인용문 7]의 가혜(嘉穗, 일본식 읽기로는 가호) 고등학교<sup>59)</sup> 관악대의 전국 순회공연은 1974년 7월에 이루어졌고, [인용문 8]의 ‘울(All)-성남고’ 관악대의 일본 공연은 같은 해 8월 14일<sup>60)</sup>에 도쿄에서 ‘제1회 일본 아마추어 음악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일본의 고등학교 밴드가 한국에 와서 네 개의 대도시에서 연달아 공연했다는 사실은 당시 JBA가 상당히 진지하게 한일 교류를 시도했음을 시사한다. 가혜 고등학교가 규슈 지방 후쿠오카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용문 1]에 등장하는 사카모토<sup>61)</sup>라는 인물이 이 행사가 성사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배로 부산에 도착하여 공연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대구와 대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공연했을 것이다. 이들의 일정은 한국 관

58) 이정생은 당시 서울대 재학 중에 졸업생 단원으로 일본 공연에 참여하였다.

59) 일본 후쿠오카(福岡)현의 고등학교로, 학교 홈페이지는 <https://kaho.ed.jp/>. 검색일: 2025. 5. 2.

60) 이날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가 암살되기 전날이었다. 이정생은 ‘이 사건 후 일본에서 며칠 동안 발이 묶여 귀국이 지체되었다’고 회고했다.

61) 이미 소개했듯이 사카모토는 JBA의 규슈 지부장이면서 지역에서 야마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악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리라 보인다.

답방으로 성남고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꾸려진 관악대가 나선 것은 협회 창립 발기인 중 유일한 고등학교 관악대 지도자인 김종석의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레퍼토리에 이교숙의 〈앵안〉<sup>62)</sup>과 박재열<sup>63)</sup>의 〈팡파레〉를 포함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같은 해 9월에 올-성남고 관악대는 귀국 기념으로 대전, 부산, 마산, 서울에서 공연을 열었다.<sup>64)</sup> 당시 성남고 관악대의 일본 연주가 관악계에 큰 의미를 갖는 행사였으며, KBA 지역 조직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던 이정생이 50여 년이 지난 일을, “규슈에서 오사카까지는 로칼 타고요. 오사카부터 신칸센”이라고 시시콜콜 기억하는 걸 보면, 참가한 젊은 세대에게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다. 일련의 교류 행사는 한국 관악인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갖게 하고, 한일 간의 실력 차이<sup>65)</sup>가 한국 관악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노덕일에 따르면, 교류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하고 일본 관악대의 리허설을 참관하여 새로운 교수법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용문 7]에서 보듯이 한일 교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일본 측에서 부담하였다. 2장에서 언급한 야마하 측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야마하의 후원금이 JBA를 통해 KBA 쪽으로 흘러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경비를 집행한 김영방의 진술

62) 『해군군악대 77년사』를 집필한 송태영에 의하면, ‘앵안’은 일본식 표현으로 무언가에 극도로 집중해서 충렬된 눈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노덕일은 ‘앵안’에서 ‘앵’이 우리나라의 재래종 벚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63) 박재열(1930-2010)은 연세대 종교음악과 제1회 졸업생으로, 김영방과 동기이다. 당시 연세대 음대 작곡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음악가 박재훈(1922-2021)의 친동생이다.

64)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15.

65) 이와 관련해서 노덕일은 “그 당시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악 실력 차이는 30년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기에 신빙성이 높다. 이런 속사정은 구술 연구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근현대 음악사 연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영방은 당시 한일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요인 중 하나로, 언어의 장벽이 없었음을 지목했다. 자신은 1945년 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6개월만 다니고 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어를 가장 못하는 축에 속했고, 특히 김종석의 일본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회고했다. 일반적으로 서양음악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독일과의 교류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1970년대 관악계의 한일 교류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 서술에서, 일제강점기를 차치하고라도, 일본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충남지부에서는 서울과는 별개로 따로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가스가 이사장의 주선으로 대전과 일본 북륙(北陸, 일본식 읽기는 호쿠리쿠) 지역<sup>66)</sup> 사이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첫 교류 연주회는 1975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 60명의 대전청소년관악단이 일본을 방문한다.<sup>67)</sup> 이 행사 역시 가스가 이사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과 북륙 지역 사이의 교류는 50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어져, 2025년 3월에는 이시카와현 고마쓰(小松)시 청소년 취주악단이 대전에서 공연을 했다.<sup>68)</sup>

66) 호쿠리쿠 지역은 일본 중부 지방 가운데 동해에 접한 네 개의 현, 즉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을 가리킨다.

67) 2014년도 대전문화재단 기획, 『대전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채록집, 노덕일 편』, “제2차 구술채록문,” 8-9.

68) 행사는 3월 25, 26일에 열렸다. 필자는 25일 만년중학교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에 내한한 취주악단의 단원은 중학생 36명, 고등학생 43명이었다. 공연 사회를 맡은 일본인이 과거에 단원으로 대전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소회를 밝혀 인상적이었다.

## 5. 나가며

1973년에 이루어진 KBA의 창립은 관악인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한 우리나라 관악(교육)사의 주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를 결정적으로 추동한 요인이 JBA를 통한 일본 악기회사의 수출 전략, 즉 국제적 자본의 흐름이었다는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는 신문 기사나 KBA의 출판물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술 연구의 특화된 이점으로 여겨진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학교 교련 수업 및 관악대의 의무 설치라는 국내적 요인이 관악 인구의 양적 확산과 관악대지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기는 했지만, 그것은 KBA 창립의 시대적 배경일 뿐 그 일차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구술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시 관악계의 실력자인 현역 군악대장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음악대학 중심의 악단 권력 구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글의 첫머리에도 언급하였듯이, 이 글은 구술자들의 증언을 기초에 두고 연구자가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기에 완결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밝힌 내용보다 앞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 더 많은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한국 원로 관악인의 구술과 사실 확인을 넘어서 일본 야마하와 JBA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나 구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다음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글쓰기를 통해 필자는 구술에서 출발하는 역사 쓰기가 연구자가 잘 다루어야 할 섬세한 접근법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구술자를 만난다면 과거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깊이를 빠르게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구술자와의 신뢰 등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개인이 아닌 공적 기관을 통해 기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게 되었다.

김영방은 1993년에 일본에 방문하여 야마하의 플루트 생산량의

30퍼센트 정도가 한국에 팔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KBA가 설립되고 20년 후의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마하의 관악 단체 후원을 통한 간접 투자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참고문헌

논저

- 2014년도 대전문화재단 기획. 『대전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채록집, 노덕일 편』.
- 김나영·김진규·김태관. 『제주 관악의 선구자』.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22.
-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한국음악사학보』 41 (2008), 149-186.
- 남궁요열. “관악4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음악협회 40년사』 (한국음악협회 편집). 서울: 수문당, 1985, 176-186.
- 노덕일. “대전관악소사.” 『대전음악 60년사』 (문옥배 편저). 예술출판사·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2008, 96-141.
- 대한민국해군. 『해군군악대 77년사』. 대한민국해군, 2024. (전쟁기념관, 국방편찬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명부』. 미출판 인쇄물.
- 오쿠나카 야스토 / 허지연 외 옮김. 『국가와 음악: 일본 근대국가 형성과 음악의 수단화』. 서울: 민속원, 2023.
-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0년사』. 서울: 한국 관악대지도자 협회, 1983.
- 한상우. 『기억하고 싶은 선구자들』.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岩野裕一. 『王道楽士の交響楽—滿洲—知られざる音楽史』. 東京: 音楽之友社, 1999.

신문 기사

- “잡지의 날 6돌 유공자 표창.” 『조선일보』. 1971. 10. 30.
- “KBS 성남고-미8군 합동연주 KBS음악회.” 『조선일보』. 1971. 10. 30.
- “전시의 문화인들⑩ | 음악인의 활동.” 『중앙일보』. 1973. 4. 13.

인터넷 자료

“김석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415>. 검색일: 2025. 4. 10.

“성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https://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25. 4. 24.

東京音楽学校 編. 『東京音楽学校一覽』 自昭和9年至昭和10年. 東京音楽学校, 1935. [NDL Digital Collections]. <https://dl.ndl.go.jp/id/1448341>. 검색일: 2025. 4. 29.

\_\_\_\_\_. 『東京音楽学校一覽』 昭和10至11年. 東京音楽学校, 1936. [NDL Digital Collections]. <https://dl.ndl.go.jp/pid/1463113>. 검색일: 2025. 4. 29.

\_\_\_\_\_. 『東京音楽学校一覽』 昭和12至13年. 東京音楽学校, 1938. [NDL Digital Collections]. <https://dl.ndl.go.jp/pid/1463140>. 검색일: 2025. 4. 29.

“福岡県立嘉穂高等学校.” <https://kaho.ed.jp/>. 검색일: 2025. 5. 2.

山田典山のブログ [和楽器・洋楽器・音出し道具・他’との毎日]. “國産管樂器製作の始まり.” <https://ameblo.jp/yamadatenzan/entry-12208074628.html>. 검색일: 2025. 4. 10.

“日本吹奏楽指導者協會.” <https://ja.wikipedia.org/wiki/日本吹奏楽指導者協會>. 검색일: 2025. 4. 3.

“春日學.” <https://ja.wikipedia.org/wiki/春日學>. 검색일: 2025. 4. 3. 잡지 Trumpet 웹사이트.

[https://www.alsoj.net/trumpet/magazine/view/920/2825.html?srsltid=AfmBOOpoUeP\\_NpKIJWeLIVNele7zZoLwZeV9WGHATszyCpdcapM8KAT](https://www.alsoj.net/trumpet/magazine/view/920/2825.html?srsltid=AfmBOOpoUeP_NpKIJWeLIVNele7zZoLwZeV9WGHATszyCpdcapM8KAT). 검색일: 2025. 4. 15.

YAMAHA 웹사이트. “history.” <https://www.yamaha.com/ja/about/history/>. 검색일: 2025. 4. 3.

## 인터뷰

김승택과의 인터뷰: 2025. 3. 16. 제주도 김승택 자택

김영방과의 인터뷰: 2025. 3. 25. 경기도 김영방 자택

노덕일과의 인터뷰: 2025. 4. 15. 대전시 대전중구문화원

이정생과의 인터뷰: 2025. 3. 15. 제주도 샬롬 호텔 로비

이종구와의 인터뷰: 2025. 6. 4. 서울시 이종구 자택

Abstract

The Development of Korean Wind Ensembles as  
Testified by Senior Wind Musicians:  
Focusing on the Foundation and Early Activities of  
the KBA in the 1970s

Jeeyeon Huh

The Korean Band Directors' Association (KBA), with a 52-years history, represents Korean wind instrument musicians. Founded in 1973, the KBA has promoted wind ensemble music through Korea-Japan exchanges, organized festivals and competitions, and supported school wind bands. Thi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wind music circle in quality and quantity. Despite its importance, the early days of the KBA remains relatively unknown due to limited documentation and a weak organizational pres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undation and early activities of the KBA in the 1970s, based on the oral accounts of senior wind musicians, particularly Young B. Kim, the first secretary general of the KBA. While doing this, I intend to offer insights into the circumstances of wind musicians around the era,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half a century ago, through the testimonies of wind musicians.

Key Words: The Korean Band Directors' Association, KBA, wind ensemble, military band, naval school of music, school band, Lee Jae-ok, Kim Young-bang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5. 4. 30	2025. 5. 7-20	2025. 5. 22

DOI 10.34303/mscol.2025.33.1.002